

'투명하고 청렴한 자치단체'

군산시, 부동산 관련부서 제한방안 지침 만들어

군산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(위원장 한진희)를 개최해 부동산 관련부서 직 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을 막고자 제한방안 지침을 만들어 시행 한다고 21일 밝혔다.

이번에 시행하는 방안은 지난 2일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반영 한 것으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 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 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다.

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기 존 8명의 윤리위원에서 위원 2명이 추 가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, 신규 추가, 임기만료, 타 시군 진출 등 에 따라 이날 4명의 위원에게 감임준 시장이 위촉장을 접수했다.

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공직자 윤리 위원들에게 시가 부동산 투기의혹 없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 제 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이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부 서의 신규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규정하고 신규취득 제한을 위반한 취 득 시 소명자료 제출과 자진매각을 요 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.

이에 따라, 시는 안전총괄과 등 총 9 개 부서 214명을 대상으로 정하고 기 존에 재산등록 인원을 제외하면 이번 에 추가로 재산등록하는 인원은 150명 이며 절차에 따라 재산등록할 예정이 다.

시 관계자는 "군산시 공무원의 부동 산 관련부서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안



내지침을 만들어 전 직원에게 안내함 으로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신규취득하는 경우, 해명요구 후 자진 매각 하는 등의 방안 수립으로 투명하 고 청렴한 자치단체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."고 말했다

/군산=한영봉 기자



익산 금마면 서동생태관광지 일대에서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.

'시민들과 함께 생태환경 보존'

익산 서동생태관광지, 천연기념물 원앙 집단 서식 확인

익산 금마면 서동생태관광지 일대에 서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.

21일 시에 따르면, 서동생태관광지 가 위치한 금마저수지에서는 지난 7 월 지역생태연구가로 활동 중인 유철 선 박사에 의한 첫 촬영 시 원앙새끼 를 포함해 12마리가 발견됐다.

이후 이날 70여 마리의 원앙이 암수 를 이뤘 집단서식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.

금마저수지 주변에는 상수리 나무가 많아 먹이 활동이 쉽고 저수지 수질 과 주변 환경이 청정하다.

특히 인근에 군부대가 있어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아 원앙 집단서 식이 가능한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 다.

원앙은 상수리나무와 달팽이, 나무

열매류 등 먹이감이 풍부한 청정한 산간계곡에 서식하는 겨울철새이나 서식환경에 의해 텃새화된 것으로 시 는 판단하고 있다.

금마저수지에는 천연기념물 330호이 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의 배 설물과 발자국 등 흔적도 포착됐다.

수달은 생태계 균질 규모와 다양성 을 유지하는 '핵심종'으로 건강한 하 천 생태계에서 서식한다.

시는 그동안 2015년부터 24년까지 전라북도 1시·군 1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일환으로 67억원의 예산으로 금 마저수지 주변일원을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을 진행해왔다.

생태관람을 위해 수변데크 및 수변 립의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식 물학습원, 생태놀이터, 에코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. /익산=이득훈 기자

해신동, 찾아가는 빨래방 윈스톱 봉사활동 펼쳐

군산시 해신동은 거동이 불편한 취 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가 을맞이 찾아가는 이동빨래 봉사활동 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.

이날 봉사는 (사)전라북도자원봉사 센터(이사장 김광호)와 연계해 이동빨 래차량을 지원받고, 지역사회보장협의 체, 통장단 주민센터 직원 등 20여명 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.

찾아가는 이동빨래방은 세탁차량에 세탁기와 건조대를 싣고 찾아가서 대 형빨래를 세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동 불편한 취약계층 및 독거 어르신 을 대상으로 봉사자가 직접 이불을 수 거해 세탁부터 건조까지 진행하는 사 업으로 관내 3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 했다



깨끗한 이불을 받은 김모(80)씨는 "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쌀쌀해지면서 두꺼운 이불을 꺼내기 시작한 날씨에 이불이 깨끗하고 냄새가 없었는데, 빨 래를 해주어서 이불에서 좋은 향이 나 고 뽀송하다"며 고마움을 전했다.

/군산=남현봉 기자

원광대, '제5회 소태산영화제' 개최

12월 온·오프라인 동시에

원광대학교는 제5회 소태산영화제 를 오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온·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.

원불교 문화사회부와 원광대가 주최 하고 원불교사상연구원 등이 주관하 는 이번 영화제는 '생명'과 '소통'을 주제로 펼쳐지며,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내 프라임관과 온라인 메타 버스 극장에서 병행된다.

행사는 영화 상영회를 비롯해 2021 마음 가까이 영상 공모전, 제2회 첨단 영상 워크숍, 마음인문학 콘텐츠 제 작 및 전시·아카이빙 등이 진행된다.

영화 상영회는 주제인 '생명'과 '소 통' 관련 영화들과 첨단영상 워크숍

우수작품이 메타버스 플랫폼 및 프라 임관 컨퍼런스홀에서 동시 상영된다.

특히 상영되는 영화 관련 GV(관객 과의 대화)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진 출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전문가 간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.

2021 마음 가까이 영상 공모전은 11 월 중 초등학생, 중학생, 대학생, 일 반시민을 대상으로 생명과 소통, 익 산을 주제로 한 영상을 공모해 우수 작을 선정해 상영된다.

온라인 기반으로 11월부터 12월 중 진행되는 제2회 첨단영상 워크숍은 사진신청을 통해 참가자들이 메타버 스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직접 경험 하는 시간을 가진데 이어 영화제 마 지막 날인 12월 7일 우수작품이 상영 된다.

또 원불교 콘텐츠 아카이빙 전시는 소태산영화제와 소태산갤러리를 연계 해 영화제 기간 상영관 근처에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해 수집된 마음인문 학과 원불교 콘텐츠를 선보여 관람객 들이 인문학 및 원불교 콘텐츠를 편 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한편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 빈의 호인 '소태산'을 인용한 '소태 산 영화제'는 2017년 제1회를 시작으 로 종교를 넘어 사상과 철학들이 예 술적으로 어우러지는 역할을 하고 있 다.

특히 원광대 개교 75주년과 초대 총 장인 송산 박길진 前 총장 열반 35주 년을 기념하는 올해 영화제는 메타버 스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동시에 펼쳐진다. /익산=이득훈 기자

익산 다이로움, 올해 발행액 2389억원 총 누적 4217억원 기록

익산시 지역화폐인 '다이로움'의 3 분기 누적 발행액이 2389억원을 돌파 했다.

21일 시에 따르면, 다이로움은 지난 해 1월 첫 발행때 누적 발행액 4217 억원을 기록하고 있다.

다이로움 가입자는 올해 초 8만4733 명에서 3분기 현재 12만명을 돌파했 다.

전체 시민 40% 이상이 다이로움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.

12만 가입자들의 1인당 평균 사용액 은 올해 3분기 현재까지 190만원이 다.

시는 침체된 골목상권의 신속한 회 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인센티브, 소 비촉진지원금, 골목상권 맞춤형 특별 이벤트 등 연중 20% 이상의 파격적 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 다.

시는 앞으로도 익산형 경제회복 정 책으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 등으로

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회복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.

시 관계자는 "다이로움은 지역에 대 한 자긍심과 소상공인을 생각하는 시 민들의 착한소비로 이어져 지역 공동 체가 강화되고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"며 "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/익산=이득훈 기자

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'북극'

우리집을 지켜주세요

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,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.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,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.

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